

“환율의 변동성 큰 시기 피하되 적극적 투자 마인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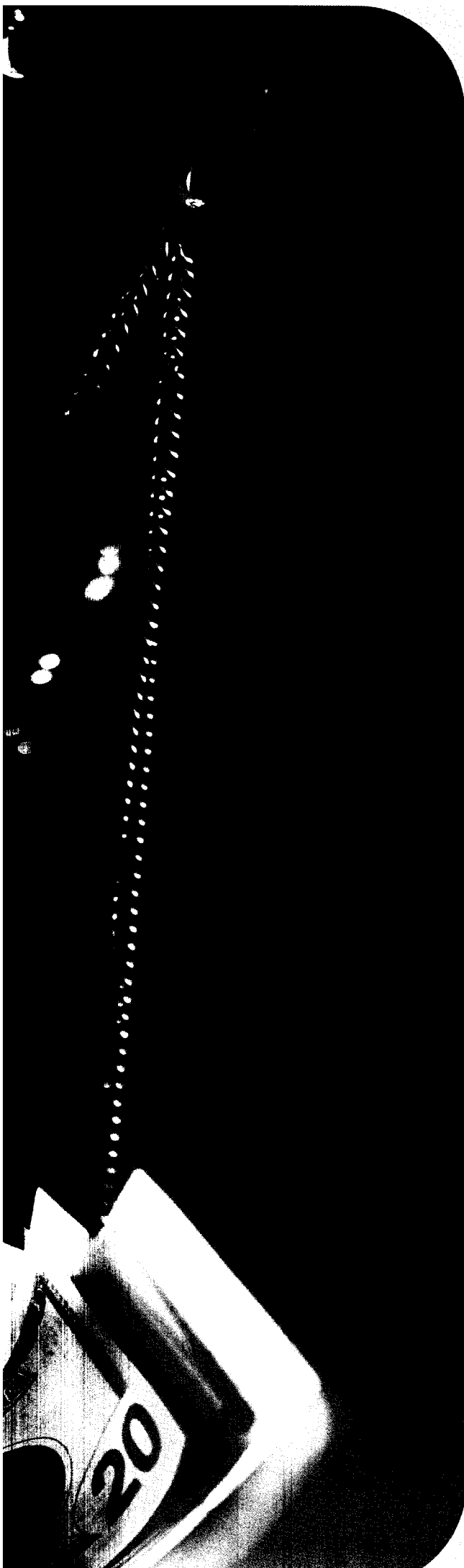
환율 변동과 인쇄업계의 대응방안



한동안 하향안정세를 보이던 환율이 천안함 침몰 및 유럽에서 시작된 금융 불안 이후에 다시 급상승하는 등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환율의 변화에 대해 수출 또는 수입업체가 아닌 다음에야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환율이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클뿐더러 기업의 수익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 후가공기계를 생산하는 국내업체들은 있지만 오프셋 인쇄기 또는 디지털인쇄기를 생산하는 국내 업체가 없는 것이 현실이기에 국내 인쇄업체는 중고인쇄기를 국내시장에서 구입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인쇄기를 해외에서 구입하게 된다. 이에 따라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영향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산업 구조에 놓여 있다. 환율이 상승할 경우에는 원화로 표시되는 구입금액에 추가적으로 비용부담이 추가된다. 예컨대 달러로 인쇄기를 구입할 경우, 1000원 선에서 20% 상승한 1200원이 된다고 가정하고 인쇄기의 가격을 10억 원이라고 한다면 추가 비용은 2억 원에 달하게 되며 각종 소모품 비용도 인상 압력을 받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인쇄업계에서 구입하게 되는 인쇄기의 가격이 수억 원을 호가하거나 10억 원을 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금융권으로부터 여신을 받아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3~5년 내의 대출기간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환율의 상승은 추가적인 금융비용을 발생시키게 된다. 이처럼 생산재인 인쇄기의 구입은 단순한 구매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향후 수년간 회사의 수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구입 시기를 결정하는데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청되고 있다. 인쇄물을 생산하는데 필수적인 인쇄기 및 후가공기계와 소모품을 대부분 또는 상당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인쇄물을 수출하기도 하는 등 인쇄업계도 환율의 변화와 관계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에 환율이 끼치는 영향이나 앞으로의 움직임 등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환율 급등 가져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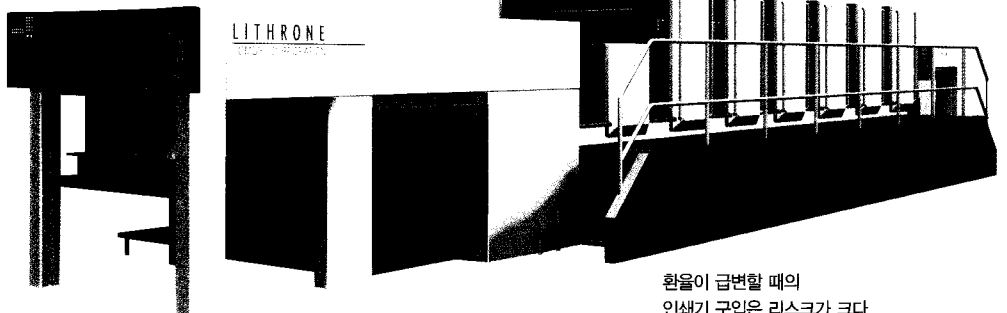
환율의 변동에 관련된 원인은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특정한 상황이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지난 2008년 이후 아직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대표적인 원인으로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들 수 있다. 비우량 주택 담보 대출을 말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은 신용도가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미국의 주택 담보 대출을 말한다. 이 가운데 서브프라임 등급은 부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프라임 등급보다 대출 금리가 2~4% 정도 높게 설정되어 왔다. 그렇지만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았으나 2000년대 들어 유동성 과잉과 저금리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에 편승한 모기지론 업체들 간의 과당 경쟁으로 미국 주택 담보 대출 시장에서 서브프라임 등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말 3.4%에서 2006년 말에는 4배가 넘는 13.7%로 급상승했다. 그러나 급상승하던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2004년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정책 목표 금리를 1.0%에서 5.25%로 대폭적으로 인상함에 따라 저소득층의 서브프라임의 연체율



이 20%로 급상승했다. 그리고 2007년 4월 미국 제2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회사인 뉴 센트리 파이낸셜이 파산 신청을 내는 것을 시작으로 리먼 등 대형 금융기관이 잇달아 실질적으로 파산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일어났다. 그 이후는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2008년 상반기만 해도 900원대에 머물던 달러 환율이 불과 수개월 만에 60%이상 급등한 1500원 중반까지 치솟는 등 IMF이후 최고 수준의 급상승을 보였다. 사실 우리나라의 내수산업이자 수출산업인 인쇄업계에서 유럽 혹은 일본의 인쇄기를 수입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는 물론 간접적인 관계를 찾기도 힘들어 보이는 미국의 모기지론에서 비롯된 금융위기가 환율의 급등을 유발시키는 바람에 한동안 국내 인쇄업계는 사실상 거의 모든 인쇄기의 신규 구입이 중단되다시피 했었다. 이는 앞서서도 거론한 바와 같이 1억 원에 구입하던 인쇄기가 2~3개월 사이에 1억 6천만 원이 되었다는 뜻이며 할부 또는 리스로 구매를 하더라도 매달 수백만 원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개별 인쇄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이 한두 가지는 있다. 다름 아닌 경제 뉴스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할 무렵이나 발생하기 직전에도 주요 언론매체의 경제란에서는 위험이 올 수 있다는 경고가 간간히 있어 왔기 때문이다. 물론 최종적인 구매 결정은 경영자가 내려야만 하는 외로운 것이지만 적어도 전혀 감을 잡지 못한 채, 환율이 이미 급등하기 시작한 다음에 구

매 결정을 내리는 실수를 할 확률은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갈수록 치열한 경쟁 속에 향후 수 년 동안 생산성을 좌우하게 될 신규 인쇄기를 구입하는 것은 회사의 성쇠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인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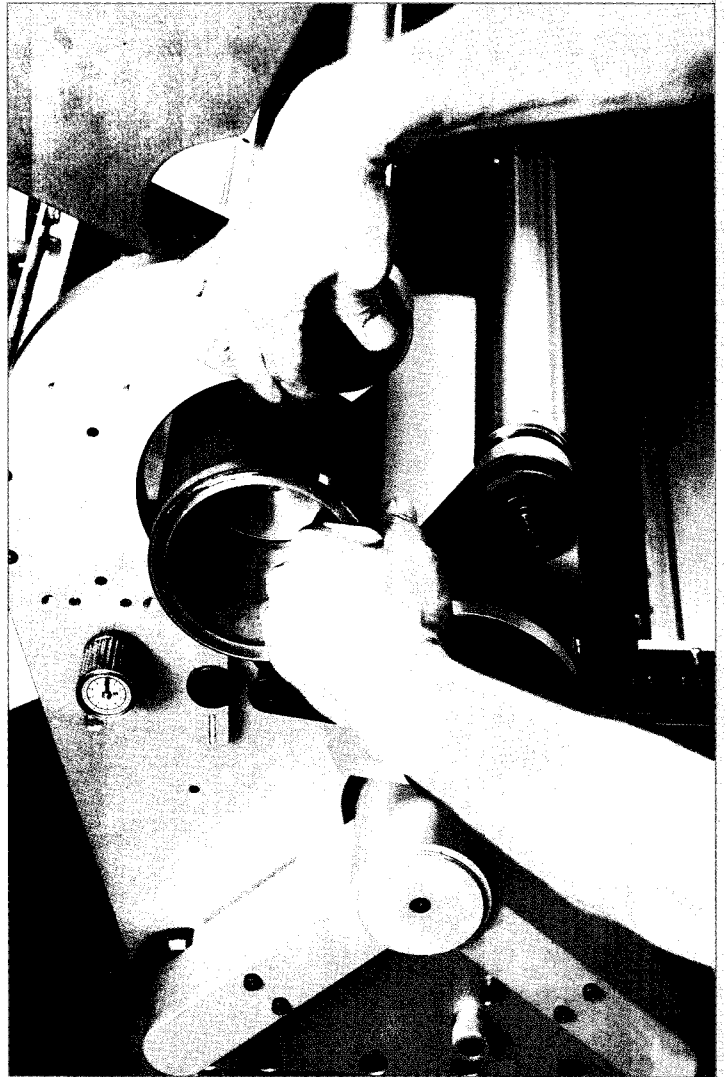
환율이 급변할 때의 인쇄기 구입은 리스크가 크다.

기의 구매가격에 큰 영향을 끼치는 변수인 환율과 관련된 뉴스나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분석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업이자 경영의 범주에 든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고환율 탓에 인쇄기 수요 급감하기도

지난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곧 이어 실물경기의 불황을 불러 온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환율의 급등은 달러화에만 국한되지 않았고 유로화 및 엔화도 비슷한 비율 혹은 그 이상 상승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엔화의 경우에는 한때 700원대까지 떨어졌으나 1600원에 육박하면서 100%에 달하는 인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 달러화가 60% 정도 상승한 것에 비해서도 3~40% 더 높은 것으로 국내 인쇄업계가 주로 수입하는 인쇄기 가운데 일본제의 비중이 적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면 일본 인쇄기 공급사들의 어려움은 더욱 컸다고 알려졌었다. 이 무렵 한 인쇄기 공급사는 기존에 계약서를 작성한 고객에게 인쇄기를 인도하기까지 걸리는 몇 달 사이에 환율이 급등하면서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판매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환율의 급변에 따라 벌어진 상황이지만 급등한 만큼 곧바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더해 인쇄기에 비하면 가격이 적었다고는 해도 운용경비나 소모품도 급등하는 환율로 인해 적자를 보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당시 인쇄기 공급사들은 차라리 계약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기를 바라는 웃지 못 할 상황도 있었다. 인쇄사들의 표정도 상황에 따라 엇갈렸다. 환율이 오르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표정관리를 할 정도로 뜻밖의 이윤에 미소를 지었고, 환율이 급등하기 시작할 시점에 계약이 이뤄진 경우에도 이득을 본 것으로 분류되었다. 단지 소모품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 실제로 2008년 초에 인쇄 후가공라인을 도입했던 S사는 환율이 오르기 전에 높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신규라인을 증설, 장비 구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비해 환율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후에 구입한 인쇄업체들은 한편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소모품 및 장비의 운용비용에 대해서는 부담을 갖기도 했다. 결국, 구입을 예정했던 인쇄사 가운데 상당수는 무기한으로 연기하는 상황이 벌어졌으며 이는 생산성 향상의 기회를 미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비 수입공급사들, 환율변동에 큰 영향

달러와 엔화 및 유로화 등이 급등한 2008년 이후 인쇄업계는 필요한 설비를 제때 교체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뒤로 미루게 되었다.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간접적으로 경영에 애로사항은 되었지만 직접적인 손실을 가져온 것은 아니었기에 직접적으로 큰 타격을 받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이에 비해 인쇄기를 비롯하여 후가공기계, 소모품 등을 해외로부터 수입해 공급하는 장비 공급사들은 대부분 정상적인 경영에 부담을 가질 정도로 부담을 가졌으며 여러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의 구입처 및 본사로부터 공급받는 장비의 가격과 환율시장에서의 가격에서 차이가 벌어졌지만 이를 적기에 반영하기 어려운 계약 조건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적자를 보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 경우도 있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구입을 할 때 기준이 되는 환율을 결정하게 되는데 결정을 며칠 단위 또는 몇 주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1년 단위를 기준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더 오랜 기간을 두고 결정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지난 2008년의 세계적인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긴급 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1~2개월 동안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해서 그 변화를 그대로 100% 반영하는 것은 제작기간, 환율의 기준선의 변경에 따른 이해관계도 얽혀 있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환율이 최고조에 달했던 2009년 2~3월에는 상담문의 조차 푼 줄 정도였다. 이런 영향을 반영하듯이 지난해에는 “어떤 업체는 1년 동안 1대도 못 팔았다더라”던가 “어떤 업체는 인쇄기 영업을 너무 부진해서 사업 자체를 접는다”는 신뢰성 없는 카더라 통신이 널리 퍼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달러의 경우, 최고 수준이었던 1500원 중반 대에 비하면 20% 가까이 하락한 수준에서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엔화는 최고 수준이었던 1600원선에 비하면 15~20% 수준인 1300원대 중반에 머물고 있어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로화가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에서 시작된 금융 위기의 영향을 받아 엔화와 100원 남짓한 수준인 1400원대까지 급락해 엔화로 결제하는 일본 인쇄기 및 장비를 수입, 공급하는 공급사들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적어도 200원 이상의 차이가 벌어져야 적절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으나 현재는 100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어려움이 크며 앞으로 유로화의 약세가 예상되고 있어 대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으나 뚜렷한 해법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암담한 상황만 있는 것은 아니다. 환율의 하향안정세가 대체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게 됨에 따라 새롭게 인쇄기, 후가공라인을 도입하는 인쇄사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금융위기 이후 중단되었던 설비투자를 다시 타진하는 업체들도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수익원을 호가하는 것이 인쇄기이고 제작과 설치 등에 시간이 적잖게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수요가 몰리는 것은 아니지만 서서히 인쇄기 및 후가공장비에 대한 수요가 일어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지난 봄 이후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위험 부담이 부각되면서 1100원대에 진입했던 달러가 다시 1200대 후반까지 치솟기도 했으나 여러 경제연

사실상 주문생산이 이뤄지는 인쇄기의 성격상 단기간의 환율변동을 100% 반영하는 것은 어렵다.





구소들의 대체적인 전망은 하반기에 하향 안정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국내 경기의 회복세도 생각보다 호조를 보이는 것도 하반기 환율 하향 안정세에 힘을 보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반기 환율전망, 1030원부터 1200원까지 '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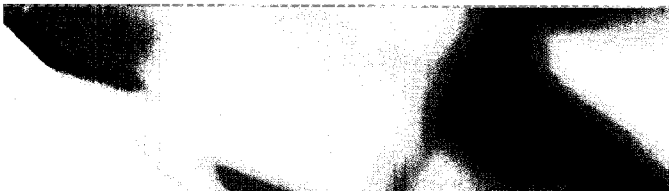
올해 하반기 환율 전망을 두고 전문기관 사이에서도 비교적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대체적으로 환율 하락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는 견해가 일치했으나 하락 폭이나 연말환율에 대해서는 차이가 컸으며 하반기 평균 환율이 상반기보다 다소 높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기관도 있다. 이들 전문기관들이 내세우는 환율의 대체적인 흐름이 하락세를 탈 것이라는 근거는 "연말까지 남유럽의 재정적인 위기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이 전

반적으로 회복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상반기의 돌발 변수였던 북한리스크에 의해 1100원대로 떨어졌다가 1200원대로 다시 올라갔지만 1100원대로 다시 진입하고 1000원대까지도 추가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지속적으로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외국인 주식투자가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으며 하반기에 중국 위안화의 절상 기대되고 있는 점 등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해 하반기 평균 환율이 상반기에 비해서 하락폭이 둔화되거나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견해도 있다. 한 전문기관은 하반기의 경제 여건이 상반기에 비해 다소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하반기 원-달러 평균 환율은 상반기보다 높은 1100원대 후반에 머물고 북한 리스크가 계속 부각될 경우에는 외국인의 공격적인 투자자금이 유입되기 어렵고 국내 경기부양의 퇴조와 출구전략의 본격화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외환시장에서 원화의 약세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상반기의 환율하락은 외국인이 주도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외국인 투자자금 흐름에 따라 환율이 좌우되는 양상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잡한 환율 흐름, 투자의 적기 찾아야

전문가리는 경제연구소들조차 환율 변동에 대해 확실한 전망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방편의 문외한에 가까운 인쇄업체가 대비를 잘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유로화의 불안정한 움직임과 여러 돌발 변수에 따라 널뛰기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요즘의 환율 시장에서는 어려움이 더욱 커진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제연구



〈표 1〉 원/달러 환율 1% 상승에 따른 경제의 파급효과

GDP 성장률	물가(CPI) 상승률	경상수지
-0.05%p 내외	-0.15%p 내외	-20억 달러 내외

자료 : 중소기업연구원

〈표 2〉 달러 환율 변화 (1달러)

날짜	매매기준율	전일대비	전월대비	전분기대비	전년대비
2010.6.15	1,226.70	3.20	93.60	92.00	-39.30
2009.3.09	,548.50	-1.50	165.50	100.50	591.00
2008.1.22	954.00	5.50	13.30	37.00	13.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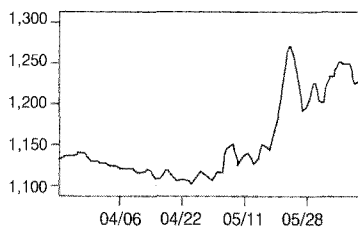
〈표 3〉 유로 환율 변화 (1유로)

날짜	매매기준율	전일대비	전월대비	전분기대비	전년대비
2010.6.15	1,496.44	4.14	75.53	-63.43	-261.78
2009.3.09	1,957.15	-11.35	174.88	99.08	480.30
2008.1.22	1,372.62	-7.16	18.48	58.19	153.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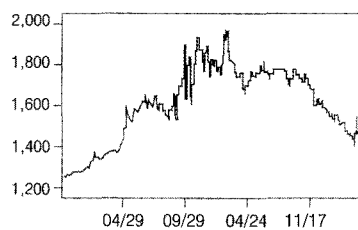
〈표 4〉 엔 환율 변화 (100엔)

날짜	매매기준율	전일대비	전월대비	전분기대비	전년대비
2010.6.15	1,345.75	16.58	123.82	93.60	-58.38
2009.3.09	1,570.17	-21.21	54.72	2.39	635.11
2008.1.22	900.00	7.29	67.89	95.61	125.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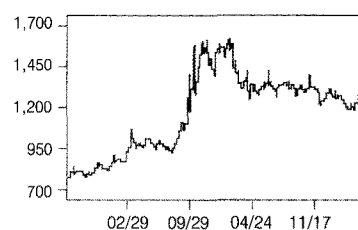
그래프 1. 미국 달러 변화 그래프



그래프 2. 일본 엔 변화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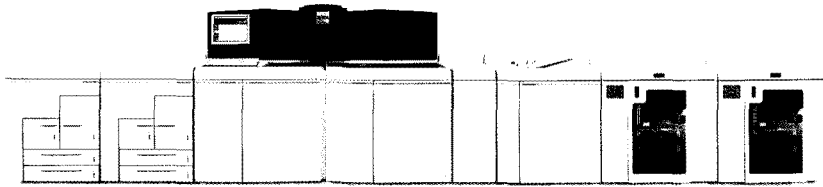


그래프 3. 유럽 유로 변화 그래프





소에서는 엔화가 상대적으로 안전자산 취급을 받는 경향이 있어 엔 가치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달러의 강세는 유로화의 약세에 따른 반사적인 강세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원화에 대해서는 당분간 달러화의 약세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적절한 대처방안을 내놓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다고 내일의 주가와 환율의 변동을 아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기에 환율이 안정세를 찾은 다음에 설비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없는 말이 될 수 있다.

지난해와 올해 들어 신규로 설비를 증설한 인쇄사의 관계자에 따르면 “환율이 더 하락하는 것을 기다려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으나 중요한 것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콘텐츠와 적시에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어느 정도 환율이 안정을 찾게 되어 투자를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고 밝혔다. 어차피 환율이란 유동성을 갖고 있기 마련이며 앞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일지 아닐지 예상하는 것은 전문가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체적인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비교적으로 안정된 지금이 설비를 투자하는데 있어 적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경제연구소의 관측이다. 이 같은 지적은 인쇄업계의 본원적인 업무가 생산성을 높이고 인쇄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일부러 환율이 급변하는 시기를 선택할 필요는 없겠지만 왕성한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필요할 때 적극적인 투자를 단행하는 것이야말로 환율의 변동에 대처하는 인쇄업계의 가장 적절한 대응일 것으로 보인다.

가장 교과서적인 대답이 정답이 될 것이다. 학문에 왕도가 없듯이 경영에도 편하고 쉽게 가는 지름길은 없을 것이기에 말이다.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